

‘한국춘란’에 빠진 화순군...미래 전략산업 집중육성

부자농촌 건설 신소득작물 선정...10억원 규모 배양장 운영 재배온실 지원 10개소 준공...중국 방문 수출 가능성 등 점검

화순군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한국춘란’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춘란산업 육성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춘란 재배교육장을 지난 4월 준공해 우량종묘 5만여축, 1만개 화분을 배양 중이다. 군은 앞서 지난 7월 1차 분양에 성공해 3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춘란 인식개선과 대중화를 위한 재배기술교육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대량증식을 위한 춘란 시설 하우스를 신축하고 종묘 구입을 추진 중이며 3개 읍면에 난실을 신축 중이다. 춘란 재배온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소당 50평형 총 22개소를 추진 중이며 현재 10개소가 준공됐다. 화순군이 이처럼 춘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춘란을 신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해 부자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이다. 난 산업은 타 작목에 비해 재배가 쉬워 귀농인이거나 고령화 추세에 농촌에서 노인들이 재배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익성이나 부가가치 역시 높고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 증가로 난산업의 대중화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시장을 점령했던 중국산 난에 비해 한국 춘란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역으로 한국춘란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화순군은 중국 내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선택적으로 도입해 수출 품종으로 육성시킨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허난성 등

백현, 후베이성 수현, 소흥시 가교구, 장주시 남정현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지 춘란 재배동향과 수출 가능성을 점검했다. 화순의 기후와 환경이 난 재배에 적절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춘란은 연평균 기온이 12~13도의 비교적 온화한 지역이 자생지고 그 중 전남은 적지로 꼽힌다. 화순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75%로 춘란이 자생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동안 명품 춘란이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부터 전국대회 규모의 난 박람회 1년에 두차례씩 화순에서 열리는 등 춘란산업의 기반 역시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올해 화순 난 명품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최대 출품작이 전시됐고 중국 난협회 회원들도 함께하기도 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춘란산업을 새로운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해 혁신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구북규(오른쪽에서 두번째) 화순군수가 관계자들과 함께 춘란실증포를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

장성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2026년 개원

50억원 규모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장성군이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전남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센터는 예비 귀농인들이 머물면서 영농 교육과 작물 재배 실습을 지원하는 영농 복합 교육시설이다. 품목별 선도 농업인 연계를 통해 과수, 채소 등 특화작물 재배 전문지식과 귀농귀촌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농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화합 도모를 추진한다. 센터는 도비 등 50억원을 들여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일원 8360㎡ 부지에 내년 중순에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착공한다. 주요 시설로는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인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장성군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삼계면 국립야생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귀농귀촌 성공모델



김한중(가운데) 장성군수가 지난 12일 직원들과 청사에서 전남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공모 선정을 축하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장성 북부권 발전과 인구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정비법 개정 따라 빈집 정비 박차

철거 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수

리 등 위태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장흥군은 이번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군은 빈집 자진철거자에 대한 철거비 지원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주택으로,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내용과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지속해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담양군이 최근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안전 대책의 홍보를 위해 담양동초등학교 일원에서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정광선 부군수를 비롯해 담양경찰, 담양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 관계자 60여 명이 함께했으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춰서 보호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사진> 군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학기 초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위해 환경, 불법 광고물, 불량 식품 등 어린이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도 나설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교통과 보행에 있어 어린이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다”며 “담양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배메산에 총꽃 5만5000본 식재

나주시가 사계절 꽃피는 배메산 가꾸기에 분주하다. 나주시는 최근 호수공원 북측 배메산 일대 1ha에 총꽃나무 목목 5만5천본을 식재하고 1km구간 꽃나무 산책로를 조성했다. <사진> 꽃 식재와 산책로 조성은 빛가람도 정주 만족도 향상과 호수공원 관광 활성화와 전략인 ‘배메산 꽃동산’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시민과 함께하는 꽃 심기 행사를 통해 배메산 산책로 주변 5488㎡에 수국 1만

1200본을 심었다. 총꽃나무는 풀과 나무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낙엽반관목이다. 가을철 일저드라임에 꽃자루가 짧은 남보라색 또는 흰 색깔의 20~30송이가 줄기를 둘러싸고 둥글게 무더기로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계단식처럼 층층으로 여러 층으로 배열돼 피어나며 식물 전체에서 은은한 향기를 낸다. 꽃말은 ‘기도하는 가을 여인’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합평군 저소득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선착순 5가구 60만원씩

합평군이 19일부터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과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막내자녀만 18세 미만)와 사회 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5가구에 선착순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6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합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 월출산 차밭으로 소풍 오세요

다음달 3~5일 ‘피크닉 행사’

“푸르른 차밭 가득한 전남 강진 월출산 차밭으로 소풍 오세요.” 강진군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성전면 월출산 일원에서 ‘제4회 강진 월출산 소풍 가는날 행사’를 연다. 주 행사장은 월출산 경포대 주차장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는 월출산 권역과 다양한 가을 소풍 테마를 주제로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이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고 군은 전했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체험 ‘피크닉 도시락 쿠킹투어’, 메타버스 증강현실을 활용한 ‘국가유산 AR 활 체험’ 등 색다른 체험도 추가됐다. 쿠킹투어는 현장에서 체험비 5천원을 내고 신청할 수 있다. 1일 최대 200명으로 총 600명만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가을날의 정취와 소풍의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군구구마 군밤, 소고기 등 지역 특산물을 구입해 바비큐 존과 함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캠프파티와 화전 부치기, 손두부 만들기 등이다. 풍선아트, 비눗방울, 전통놀이 체험 등 어린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 지난 행사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월출산 피크닉 브런치’도 빠질 수 없다. 피크닉 브런치는 다음달 1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돛자리를 포함해 샌드위치·구운 떡·빵·음료수 등으로 구성된 알찬 브런치 세트(1세트/2인기준)가 2만 원이다. 1일 최대 100명으로 300명만 선착순이다. 평소 월출산의 자연경관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다. 월출산 트레킹, 월출산 등반 산행 후 인증 시 축제가장에서 쓸 수 있는 5천원 쿠폰과 지역 특산물(검정찰옥미 등)을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군수는 “향상 봄에 개최했던 월출산 소풍가는 날 행사를 이번에도 처음으로 가을에 개최한다”면서 “가을향을 머금은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많은 관광객이 느끼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내달 개장

화순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주민과 동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청풍면 풍암리 일원 18만 8347㎡ 부지에 81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다. <사진> 공정률은 97%로 부대 시설물 설치 등 막바지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한다. 화순 파크골프장은 경기홀과 별개로 연습용 6홀이 더 조성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됐다. 지금까지는 경기 양평 파크골프장이 81홀을 갖춰 가장 큰 곳이었다. 사업비 63억원의 전액 군비로 마련했다. 화순군은 홍수조절지를 활용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다.



홍수조절지란 하천 내 넓은 부지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저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댐이다. 평상시에는 자연 생태를 활용한 휴식·체육 장소로, 홍수 때는 유량을 조절해 피해를 막는 데 이용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